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심의총평

- 사업 유형 :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 회의일시 및 장소
 - 서류 심의 : 2016. 8. 19(금) 14:30,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1실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사업에는 총 19개의 개인 및 단체가 응모했다. 서류심의를 통해 총 5건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심의기준은 기획자의 예술적 역량 및 기획의 명확성(30%), 전시 기획의 예술적 수월성(20%), 전시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2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에 두었다.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어서 인지 기획자들의 지원이 많지 않았으며, 신청지원서 대부분이 “전시 사전연구”라는 공모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잘 맞지 않았다. 제출된 기획안 상당수가 커뮤니티 전시 사전연구인 점이 특이 했다. 인접분야인 문학을 미술영역으로 다루려는 기획안도 복수였다.

“사전연구 지원”이란 전제 때문에 연구 성과가 비교적 구체화 될 수 있는 영역을 용이하게 선택한 결과가 아닌 듯 싶다. 전반적으로 전시를 위한 사전연구라는 개념과 필요성이 미술계 현장 전반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듯 보였다. 전시를 기획함에 있어 사전연구를 필요로 하는 연구목적이 분명하고 타당성이 있는, 설득력 있는 단체 위주로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의 어려운 고민 끝에 선정된 지원자 역시, 선정 이후 사전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인 방향 설정과 연구 성과 등 구체화가 필요하다.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심의위원 일동